

'文 47시간' 정국 변수되나

野, '세월호 7시간' 비교하며 '文 47시간' 공격 추석 앞두고 민심 선점·정국 장악력 확대 의도 국회 차원 국정조사·청문회 추진 주장까지

북한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며 총공세에 나서 정국을 급속도로 냉각시킬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크다.

비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사과를 표명했지만, 이와 별개로 군의 대응과 대통령의 대처 방식 등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북풍'을 고리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북측 통지문에 대한 논평에서 "의미 없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나타냈다.

추미에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비롯해 여권발 약재가 쏟아졌지만 정국 장악에 한계를 드러냈던 만큼 야권은 북한 군 총격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권·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민심 끌어안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전략은 추석 밤상머리 민심을 선점함으로써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들어 '좌클릭'으로 인한 당내 불만이 고조되던 시점에 안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를 중시하는 정당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전통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부동층을 흡수할 수도 있다.

야권은 잠룡까지 가세하며 '문 대통령의 47시간'을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핵'으로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47시간은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22일 오후 6시3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24일 오후 5시 15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자국민 사살 보고를 받고도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한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사태를 보고받고 10시간 뒤에 대통령에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립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내 나라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긴급대책을 논의하는 23일 청와대 안보실장 주관 긴급회의에 대통령은 불참하고 관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무슨 말로 궤변을 늘어놓을까"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과 대야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중요한 시국일 때 짜파구리 파티를 열고 이번엔 아카펠라 공연을 했는데, 위기감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결기가 안 보이는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토가 쏟아졌다.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은 새벽 1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7시간 후인 23일 오전 8시 30분에는 보고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야권 4차 추경 합의를 통해 간만에 협치에 숨통을 틔웠지만 '북풍'의 여진이 예사롭지 않은데다 앞으로 국감과도 맞물려 당분간 야권의 거친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의 피격 사건 공식 발표 당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다음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정에 없던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위원 긴급간담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국회의 안과에 '북한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피격 도발행위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제출했다. 당내 군장성 출신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태영호·하태경 의원 등이 참여하는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도 구성해 정부 당국의 대응과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일각에선 야권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견주며 '제2의 박왕자 사건'으로 명명한 만큼 정국에 미칠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의 추진 필요성도 조심

스레 제기된다. 국방부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북한은 자국 영해 불법 침입으로 주장한 점, 국방부의 시신 훼손(화형) 발표와 달리 북한군은 부유물만 소각 처리했다고 주장한 점, 북한군 상부 지시 여부, 총격 상황 등 쟁점이 많은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정국의 긴장감이 지금보다 더 고조되고 진영 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북한이 통지문 하나 보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쉽게 가라앉을 성질은 아니지 않나"며 "정국 상황에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의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됐는데도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간 건 대통령의 국기 문란이자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방부 발표와 북한측 발표 내용이 차이가 있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여야가 하루빨리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역대 국감 '이색 증인' 열전 선동열·백종원·구령이까지

과방위 펭수·농해수위 백종원 채택·기재위는 전두환 신청

여야가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놓고 명단을 확정해가고 있다. 해마다 등장하는 이색 증인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칫 이벤트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장 화제로 떠오른 인물은 백종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EBS 인기 캐릭터 '펭수'다. 백 대표는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인병길 국민의힘 의원 요구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산자중기위 국감때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에 불려 나온 바 있다.

펭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펭수 캐릭터의 저작권 지급 및 수익구조 정당성, 노동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했다. 다만 '펭수 탈' 속 연기자는 EBS와의 계약 상 신원노출 금지 조항이 있어 펭수의 출시 여부와 방식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제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징금을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인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본인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를 신청하려다가 부사장급으로 낮춰 부르기로 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 출연 실적을 따져보기 위함이다.

여야간 증인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진태 열린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주주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홍 무소속 의원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 사장의 비밀회동 의혹 해소를 이유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당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의혹과 관련해 아들 서모씨와 함께 근무한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단 한명도 합의 해줄 수 없다는 여당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위원회에선 사모펀드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증인들이 야당의 요구로 채택됐다.

이색 증인은 국감마다 반복됐다. 국



회 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슈몰이가 될 법한 증인을 부르거나 퍼포먼스를 선보여 주목받기 위한 의욕도 작용한다.

지난 2018년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선 선동열 당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이 화제가 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을 얻었지만 병역 특례를 위한 선수 선발 의혹이 제기돼 국감장에 불려왔다. 이후 선 감독이 감독직을 사퇴하면서 당시 국감장에서 거센 추궁을 한 손혜원 전 의원에게 화살이 돌아가기도 했다.

연예인도 종종 국감장으로 불려온다. 지난 2011년 국감에는 당시 KBS2 드라마 결방 사태로 열악한 드라마 제작 여건이 부각되면서 배우 한예슬씨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가수 표준계약서 점검을 위해 가수 태진아씨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었다.

제벌 총수도 예외가 없다. 지난 2015년 정부위 국감에는 가족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동물 증인'도 잇달면 하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018년 국감에는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 사살을 놓고 동물학대를 문제 제기하기 위해 '뺑갈 고양이'를 데려왔다.

2014년에는 김용남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괴물' 뉴트리어를 국감장에 데려왔지만 환경노동위원회 파행으로 대기만 하다 돌아갔다.

뉴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